

유학심리학의 체계 구축을 위한 하나의 시도:
“사회관계론의 동·서 비교”를 중심으로

조공호(서강대학교 명예교수)

1. 서구심리학의 보편성에 대한 회의

현대 과학적 심리학은 1879년 독일의 분트(Wilhelm Wundt)가 라이프치히(Leipzig)대학에 심리학실험실을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본래 철학자이자 생리학자였던 분트는 인간이 인식한 외계사물에 대한 관념(idea)의 구성요소를 실증적인 관찰을 통해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바로 심리학의 핵심 연구내용이라 보았다. 이러한 연구주제는 인간과 외계를 이분하고, 인식주체인 인간이 인식대상인 외계를 받아들이는 과정과 그 결과적인 내용을 탐색하려는, 플라톤으로부터 이어지는 서구의 관념철학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현대 과학적 심리학은 출발 초기부터 서구철학의 맥락에 근거하고 있어서, 서구중심적인 학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서구심리학의 근본적인 연구 자세는 계몽시대 이래 근대 서구의 학문세계를 지배해온 보편주의(universalism)의 태도였다. 인간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실체들로 구성된 우주는 고정적이고도 보편적인 법칙에 의해 지배되며, 인간은 이성 능력을 발휘하여 합리적으로 외계를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이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신념이 곧 보편주의이다. 전통적인 심리학은 인간도 다른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안정적 실체로서 이러한 인간의 심성과 행동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으며, 객관적 합리적인 연구를 통해 이를 찾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왔던 것이다(Berry, 2000; Greenfield, 2000, Shepard, 1987; Shweder, 2000, Triandis, 2000).

이러한 믿음 아래, 현대 서구심리학에서 다루는 문제가 곧 보편적인 인간 심리와 행동 과정을 대표하는 것이며, 여기서 밝혀진 원리가 인간 심성과 행동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원리를 대변하는 것이어서, 서구심리학은 곧 보편심리학이라는 등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Berry, Poortinga, Segall, & Dasen, 1992; Danziger, 1997). 그리하여 서구심리학에서 다루는 문제나 개념, 방법 및 이론화가 서구의 문화특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타문화에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그들의 심성과 행동을 서구의 개념과 이론으로 설명하려 하였으며, 그 결과 비서구인들에게 “과학적 문화변용”(scientific acculturation: Berry et al., 1992, p. 379)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서구심리학에서 찾아낸 인간의 심성과 행동을 설명하는 원리가 본질적으로 서구, 특히 미국 사회의 문화특수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이, Gergen(1973)에 의한 일련의 논쟁(Manis, 1975; Sampson, 1978; Schlenker, 1974; Triandis, 1978)을 거쳐, 인간의 문화적·역사적 존재구속성(Gergen, 1985; Pepitone & Triandis, 1987; Shweder,

1990)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드러난 서구심리학은 곧 보편심리학이라는 등식의 허구성에 대한 논거는 문화비교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많은 문화비교 연구의 결과들에서는 기존의 심리학에서 보편적인 원리로 밝혀진 많은 원리들(예: 인간의 인지 능력은 구체적 추론양식에서 추상적 추론양식으로 발달한다는 Piaget의 인지 능력 발달의 원리)이 실상은 서구인, 특히 미국 중산층 백인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개인 중심적 인간관에 기초한 문화특수적인 것일 뿐, 관계중심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도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Miller, 1984, 2002)이 밝혀지고 있다. 현대 미국 사회심리학의 핵심적인 연구 30개를 선정하여 이스라엘에서 재검한 어느 연구(Amir & Sharon, 1987)에서는, 6개에서만 동일한 결과가 얻어졌고 4개에서는 부분적으로만 결과가 반복되었을 뿐임에 반해, 20개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얻어졌는데, 이러한 사실은 현대 서구, 특히 미국심리학의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미국심리학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서구심리학에서 밝혀진 이론들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누구에게나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라 “어느 다른 지역에서 개발된 이론이나 마찬가지로 토착심리학(indigenous psychology)의 한 가지일 뿐”(Greenfield, 2000, p. 231)임이 분명하다. 서구심리학에서 밝혀진 많은 원리들은 “그 주요 개념·이론·방법 및 발견들이 원래 그리고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유럽의 지적 전통, 엄격하게는 주로 미국 사회의 문화적 및 사회철학적 기반 위에서 배태된 것”(Yang, 1997, p. 69)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곧 미국심리학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심리학은 미국 또는 서구라는 지역적 한계에서 탈맥락화하지 못하고, 서구식 개인주의의 관점에 함몰되어 대상을 인식하는 서구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Yang, 2000).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비교 연구와 연구자가 소속하고 있는 문화의 철학적 배경에 관한 탐구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인간은 문화 속의 존재이며, 해당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체계는 이러한 문화의 집약체로서, 문화와 그 사상적 배경이 달라지면 인간의 심성과 행동은 필연적으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들이 모아져야 보편심리학을 구축하고자 하는 심리학자들의 오랜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인간 존재의 문화구속성과 문화심리학의 연구

문화는 한 사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삶의 양식으로,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바탕이다. 자기가 태어나 살고 있는 문화의 우산을 벗어나 진공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인간의 심성과 행동은 문화구속적이어서, 누구나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심성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심리학에서는 그 이론적 틀 속에 문화의 영향에 관한 문제를 필수적으로 포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대 심리학자들이 문화가 인간 심성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Doob, 1980). 그 까닭은 한 사회의 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내용이 무엇인지 규정하기가 애매할 뿐만 아니라, 문화 사이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을 설정하기도 어렵고, 또한 이러한 공유 내용 규정 및 비교

차원 설정에 따르는 방법론적인 어려움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었다(Fiske, Kitayama, Markus, & Nisbett, 1998; Markus & Kitayama, 1991; Nisbett, 2003).

문화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에 불이 당겨진 것은 Hofstede(1980)의 대규모 연구 이후였다. 그는 전 세계 66개국(53개 문화권)의 IBM회사에 근무하는 117,000여명의 종업원에게 작업 목표 및 가치와 관련된 “작업관련가치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또는 문화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네 요인(권력거리, 개인주의, 남성성, 불확실성 회피)을 찾아내었는데,¹⁾ 이 네 요인 중 이후의 연구자들이 문화차를 가장 잘 드러낼 것으로 보고 주목한 요인이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 차원이었다(Oyserman, Coon, & Kimmelmeier, 2002).

문화비교심리학의 연구에서 이렇게 개인주의-집단주의의 분류체계에 관심이 집중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는데(조공호, 2012, pp. 32-40; Kagitcibasi, 1997, pp. 3-10),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동아시아가 하나로 묶이고 서구가 그 반대쪽 극단에 모이는 것은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이 유일하여, 동·서의 문화차를 대비할 수 있는 개념틀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²⁾ 곧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은 동·서의 문화차를 비교하는 유일한 핵심차원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1970년대에 일본을 비롯한 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유교권 국가들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자, 종래의 베버(Max Weber)류의 동아시아 정체론에 물들어 있던 서구의 사회과학자들 사이에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론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아시아적 가치 논의”(Asian Value Discourse)가 제기되는 등, 동아시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는 사실도,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에 문화비교심리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게 만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게다가 문화비교 연구에서는 대조되는 문화권에서 상응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한국·일본·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 같은 동아시아 유교권 집단주의 사회의 경우, 같은 집단주의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과테말라·에콰도르·파나마·베네수엘라·콜롬비아·코스타리카·페루 같은 남미나 인도네시아·파키스탄·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미국에서 유학한 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므로,³⁾ 미국의 연구자들이 이들 동

1) 이 연구의 대상은 모두 IBM이라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근로조건이나 학력 및 연령 등은 대체로 비슷하고 단지 국적만 다르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조사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곧 국가 또는 문화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호프스테드의 생각이었다. 또한 그는 국가 사이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각 문항에 대한 개인별 점수가 아니라 응답자들의 국가별 평균치를 기초자료로 하여 분석하는 생태학적 분석(ecological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이 점이 바로 그의 연구로 하여금 문화비교심리학 분야에서 시원적인 작업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2) 호프스테드의 자료에서 보면,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에서는 미국 (1위)·호주 (2위)·영국 (3위)·캐나다 (4/5위)·네덜란드 (4/5위)·뉴질랜드 (6위)·이탈리아 (7위)·벨기에 (8위)·덴마크 (9위)·스웨덴 (10/11위)·프랑스 (10/11위)·아일랜드 (12위)·노르웨이 (13위)·스위스 (14위)·독일 (15위) 같은 서구의 국가들이 개인주의의 극단으로 묶이고, 대만 (44위)·한국 (43위)·싱가포르 (40위)·홍콩 (37위)·일본 (22/23위) 같은 동아시아 유교권 국가들이 강한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묶이고 있다. (Hofstede, 1991: 차재호·나은영 역, 1995, p. 87, 표 3.1.) 그러나 이 이외의 나머지 차원들에는 동·서의 국가들이 혼재되어 있다. (Hofstede, 1991/1995, p. 52, 표 2.1; p. 128, 표 4.1; p. 169, 표 5.1 참조.)

3) 1980년대 이후의 미국 유학생 통계를 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미국 유학생 수는 대체로

아시아 유교권 집단주의 사회의 연구자들과 손잡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개인주의-집단주의 체계가 중심적인 동·서 문화비교 연구의 차원으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리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의 문화비교 연구들에서는 주로 미국·캐나다·호주 같은 서구의 국가를 개인주의 문화권의 대표로 잡고, 이와 대비되는 집단주의 문화권의 대표로 한국·중국·일본 같은 동아시아 유교권 국가를 잡아, 이 두 지역인들의 심성과 행동의 특징을 대조하고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던 것이다(Kagitcibasi, 1997; Oyserman et al., 2002; Triandis, 1995).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서구 개인주의 사회인과 동아시아 집단주의 사회인의 제반 심성과 행동의 차이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서구심리학의 보편성에 대한 회의의 확산과 함께 동·서 문화차의 사상적 배경에 관심이 고조되었다.

3. 동·서 문화차의 사상적 배경: 자유주의사상과 유학사상

개체로서 존재하는 개인을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과 사회보다 우선시하는 서구 개인주의는, 상호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인 개인이 갖는 천부적인 자유와 권리 그리고 보편적인 이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이념에서 그 절정을 맞는다. 곧 현대 서구 개인주의의 이념적 배경은 자유주의사상이다. 자유주의는 르네상스와 기독교개혁을 거쳐 17세기 영국에서 경험주의 철학 및 자연권 사상의 등장과 함께 무르익은 사상체계로서, 이어지는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을 거쳐 서구 문화의 대세로 자리잡은 개인주의 문화가 조성되게 만든 사상적 배경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성과 진보, 그리고 평등과 존엄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한다(노명식, 1991; Dülmen, 1997/2005; Gray, 1995/2007; Laurent, 1993/2001; Lukes, 1973).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세 가치로부터 자유주의가 개념화하는 인간관이 도출된다. 자유주의는 인간을 “자유 의 보유자”라고 보아, 인간의 존재 의의를 개인 존재의 “개체성”에서 찾는다. 그러므로 자유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서구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주의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기울어지게 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율성·독립성·독특성을 강조하고 추구한다. 또한 자유주의는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특성을 “이성 주체”로서 갖는 “합리성”에서 찾는다. 그리하여 서구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합리적 계산과 선택을 통한 자기이익의 확보를 중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기주장과 자기존대를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사람은 누구나 행위 원천인 내적 속성(성격·능력·욕구·감정)을 완비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2~5배, 남미 국가들의 2~7배에 이르고 있으며, 해가 지날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별 미국 유학생 수의 순위는 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대체로 중국·한국·일본·대만이 순서대로 1·2·3·4위를 점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미국 국립교육통계 자료: http://nces.ed.gov/programs/digest/d09/tables/dt09_418.asp). 이러한 통계 자료에서 유추해 보면, 한국·중국·대만·일본 같은 동아시아 유교권 국가의 학생들 중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귀국하여 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활동하는 연구자의 수는,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동남아시아나 남미의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연구자들이 문화비교 연구의 파트너를 찾을 경우, 동아시아 지역이 동남아시아나 남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인 것이다.

고 있는 실체라는 점에서 평등하고, 누구나 고유하고 유일한 최종목적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존엄하다고 본다. 그들은 이렇게 인간을 “완비적 실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성적 존재로서의 불변성을 강조하며, 삶의 과정에서 일관성·안정성·자기고양을 추구하는 경향을 띤다. 자유주의자들의 이러한 인간관은 곧 이를 이념적 바탕으로 하는 개인주의 사회의 인간관으로 연결되어, 현대 서구 개인주의 사회인들이 보이는 제반 심성과 행동의 특징을 유발한다.

이와는 달리, 개체로서 존재하는 개인보다 그들로 구성된 집단(가족·내집단)을 우선시하는 동아시아 집단주의는, 이러한 집단의 구성단위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고, 이러한 관계를 맺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과 도덕성을 앞세우는 “유학”의 체계에서 그 사상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동아시아 사회에서 유학은 오랫동안 관학(官學)으로서, 사회를 지배하는 주도적인 이념체계였다.⁴⁾ 이러한 유학은 오늘날에도 알게 모르게 동아시아 사회인들의 삶의 과정을 지배하는 사상체계로서 작용하고 있다(윤이흠·박무익·허남린, 1985; 최영진, 2000; Tu, Wei-Ming, 1996). 이러한 유학사상은 인간 존재의 사회성, 도덕성, 그리고 가능성을 핵심가치로 추구한다.

유학이 추구하는 이러한 세 가치로부터 유학사상에서 개념화하는 인간관이 도출된다. 유학은 개체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관계가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라고 보아, “사회적 관계체”로서의 “사회성”에서 인간의 존재 의의가 나온다고 간주한다. 그러므로 유학사상을 이념적 기초로 삼고 있는 동아시아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주의의 초점이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과 상황조건에 주의의 초점이 기울어지게 되어,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연계성·조화성·유사성을 강조하고 추구한다. 또한 유학사상은 동물과 다른 인간의 고유 특성을 “덕성 주체”로서 갖는 “도덕성”에서 찾는다. 그리하여 유학사상에서는 타인과 집단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중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양보와 겸양, 자기억제 및 책임의 자기귀인을 강조하고 추구한다. 그리고 유학자들은 인간을 소인(小人)의 상태에서 군자(君子)로 변화할 수 있는 “가변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공간적인 “변이가능성”을 강조하며, 삶의 과정에서 가변성·유연성·자기개선을 추구하는 경향을 띤다. 유학자들의 이러한 인간관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집단주의 사회의 인간관으로 연결되어, 현대 동아시아 집단주의 사회인들이 보이는 다양한 심성과 행동의 특징을 유발한다.

문화비교 연구들에서는 서구와 동아시아 사람들이 인지·동기·정서 행동(조공호, 2003)과 사회관계 행동(조공호, 2012)의 영역에서 이상의 추론에서 제시된 차이를 실제로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동·서의 문화차는 서구 자유주의와 동아시아 유학사상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로부터 연유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곧 서구 개인주의와 동아시아 집단주의 문화의 사상적 배경은 각각 자유주의와 유학사상인 것이다(조공호, 2007).

4) 중국은 과거제를 실시한 한무제(漢武帝)로부터 청(淸)의 멸망까지 2,00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과거제를 실시한 고려 광종(光宗) 이후 조선의 멸망까지 1,000여년 동안 유학이 관학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일본에서는 유학이 관학의 지위를 차지한 적은 없었으나, 에도(江戸)막부 이후 최근세 400여년 동안에는 유학의 이념을 통해 국가 사회의 기강 확립을 꾀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4. 유학의 이론 체계와 그 심리학적 함의

이상에서 보듯이, 동아시아 집단주의 문화의 사상적 배경은 유학사상이다. 유학은 사회적 관계체로서의 사회성에서 인간의 존재 의의를 찾고, 우주 삼라만상과 다른 인간의 고유 특성을 타인/집단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체계인 도덕성이라 보며, 인간은 소인의 상태에서 군자로 변모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존재라 간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스로가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덕성의 주체로서 인간의 삶이란 사회관계 속에서 이러한 도덕성을 실천함으로써, 이상적 인간상을 지향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유학사상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이러한 유학사상에서 심리학적 관련이 깊은 이론체계는 인간이 본유적으로 갖추고 있는 심성의 요소에 관한 인성론(人性論), 이러한 특성을 본유하고 있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 상태에 관한 군자론(君子論), 이러한 이상적 인간의 삶의 양태에 관한 도덕실천론(道德實踐論), 그리고 현실적 인간이 이상적 인간상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에 관한 수양론(修養論)의 네 체계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조공호, 2008). 유학은 이 네 체계를 핵으로 하여 구축되고 있는 이론체계인 것이다.

인성론은 우주 상에서 인간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이론체계이다. 인간의 심성을 지·정·의(知·情·意) 삼분체계를 토대로 이해하고, 인간만의 고유특성을 지적 능력의 근거인 이성이라고 보아 이성우월주의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서구 철학과는 달리, 유학자들은 인간의 심성이 덕(德)·지·정·의 사분체계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타인/집단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체계인 도덕성이 인간만의 고유특성이라는 덕성우월주의의 관점을 편다. 인성론을 통해 유학사상은 인간 존재의 기초를 사회성과 도덕성에서 찾는 관점을 편다.

군자론은 이러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향해야 할 최고의 이상적 상태는 어떤 것인가에 관해 탐색하고자 하는 이론체계이다. 개체로서의 존재 특성에서 인간의 존재 의의를 찾는 서구인들은 개체로서의 자기실현을 이상적 인간의 조건이라 본다(김성태, 1976). 이에 비해 유학자들은 자기수양과 함께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가 떠맡아[自任] 완수하려 노력하는 사람을 이상적 인간이라 여긴다(조공호, 2006). 군자론을 통해 유학사상은 가능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이 지향해야 할 목표상태를 정립하려고 한다.

도덕실천론은 이상적 상태에 이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탐구하고 있는 이론체계이다. 사회관계를 보상과 이익을 주고받는 교환의 관계라 개념화하는 서구인들은 교환관계에서의 자기이익의 추구를 강조하며, 공정한 교환이 사회관계 유지의 기본 규범이라 본다. 이에 비해 인간을 사회관계 속의 존재로 개념화하는 유학자들은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의 사회행위의 원동력은 사회관계 속에 내포된 역할과 의무에서 도출되며, 이상적 인간은 이러한 역할의 인식과 수행을 통해 조화로운 사회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의 평화를 이루려 노력한다고 여긴다. 이상적 인간의 삶은 한마디로 도덕성의 인식과 실천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 유학사상의 사회관계론의 요체이다. 곧 인간 존재의 사회성과 도덕성의 실천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수양론은 인성론에서 설정한 바대로의 현상적인 인간이 군자론에서 설정한 바와 같은 이상적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있는 이론체계이다. 인간을 완비적 실체라고 보아 스스로가 완비하여 갖추고 있는 장점을 찾아내어 확충하는 것이 자기향상의 길이라

고 개념화하는 서구 현대심리학과는 달리, 유학사상에서는 가변체로서의 인간이 사적인 욕구와 감정을 억제하고, 이 과정에서 자기의 단점을 확인하여 이를 고쳐나가는 자기개선이 자기향상의 요체라고 여긴다. 수양론을 통해 유학사상은 인간의 가능성의 현실적 실현을 도모한다.

유학사상의 이러한 네 가지 이론체계 각각으로부터 서구의 현대심리학과 다른 심리구성체론, 이상적 인간형론, 사회관계론, 자기발전론의 체계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관점이다. 필자는 이 네 분야의 동·서 비교를 통해 서구 심리학과는 다른 새로운 이론체계를 정립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서구의 심리학에서 간과하고 있거나 소홀히 하고 있는 도덕심리학, 정신건강심리학, 역할심리학 및 자기향상론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유학심리학의 체계를 구축해 보고자 하는 것이 필자의 작업이 지향하고 있는 바이다.⁵⁾

5. 유학심리학 체계 구축의 방법론

일반적으로 유학사상이 동아시아인에게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동아시아인들의 부정적 측면(예: 자아 말살, 가부장적인 가족중심주의, 계층의식, 인간관계 중시, 관존민비, 권위 존중, 체면 중시, 과거지향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예: 윤태림, 1969, 1970), 이러한 연구들이 안고 있는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유학의 어떤 측면이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쳐 현재의 행동을 낳게 되었는지에 관한 분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한덕웅, 2001, p. 463). 기존의 연구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이 원인으로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유교문화가 동아시아인에게 끼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일관되는 기본틀이 없이, 논자 나름대로 유학 경전의 이 구절 저 구절을 이런 저런 행동 특징과 순전히 자의적으로 연결 지어 해석하려 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현대 동아시아인의 행동과 심성의 특징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수집함이 없이, 대부분 근거도 희박한 일상적인 편견에 기대어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는 인간 심성과 행동에 관한 유학적 이론체계에 대한 철저한 탐색이 없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탈피하고 유교문화가 동아시아인에게 끼친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대 동아시아인의 인지·정서·동기 등 제반 행동과 심성 특징에 관한 실제적인 실증적 자료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학사상에서 인지·정서·동기 같은 인간의 심성에 관한 이론체계들을 도출한 다음, 이 두 자료(현대 동아시아인의 실제적인 행동 특징에 관한 실증적 자료와 인간 심성의 인지·정서·동기적 측면에 관한 유학의 이론체계) 사이에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현대 문화비교심리학에서 실증적으로 밝혀낸 연구 결과들을 개관하여, 인지·정서·동기의 측면에서 현대 동아시아인이 드러내는 심성과 행동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 찾아낸 다음, 『논어』·『맹자』·『순자』 같은 선진유학의 경전과 퇴계(退溪)와 율곡(栗谷) 등 조선조 성리학자들의 저술에서 인지·정서·동기 같은 인간의 심성과 행동에 관한

5) 필자는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상적 인간형론의 동·서 비교”(2006)와 “사회관계론의 동·서 비교”(2012)를 펴내었다. 앞으로 “심리구성체론의 동·서 비교”와 “자기발전론의 동·서 비교”를 거쳐, 그 결과들을 “유학심리학의 체계”로 묶어보고자 하는 것이 필자의 계획이다.

이론체계를 도출하고, 이어서 이 두 자료 사이에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조금호, 2003, 2007, 2012).

이는 동아시아인의 구체적인 어떤 개별 행동이 유교문화의 구체적으로 어떤 개별적인 측면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를 다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연결지어 보려는 이전의 연구 경향과는 달리, 유학의 경전에서 인간 심성의 구성 요소(예: 인지·정서·동기)를 이해하는 이론체계를 찾아내어 이것과 현대 동아시아인의 행동 특성을 결부시킴으로써, 동아시아인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는 개념틀을 구성해 봄은 물론, 동아시아인에게 끼친 유교문화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려는 시도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집단주의-개인주의 문화차의 비교 연구에서 얻어진 집단주의 문화인의 행동 특징을 잠정적으로 동아시아인의 행동 특성으로 간주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구체적인 동아시아인의 행동 특징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동아시아인의 심성과 행동의 현실적 특징을 문화비교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찾아내고(1단계), 유학의 경전에서 인간의 심성과 행동에 관한 이론체계를 도출해냄(2단계) 다음, 이 두 자료 사이의 논리적 정합성을 정밀하게 고찰해보는(3단계) 다층 분석이 필자의 이 분야 작업의 기본 방법론이다.

6. 본서(사회관계론의 동·서 비교)의 내용

유학사상의 도덕실천론과 서구의 사회계약론/사회교환이론을 통해 동·서 사회관계론을 비교해보고, 이러한 두 문화권의 사회관계론의 차이로부터 두 문화권 사람들의 사회관계 영역에서의 실제적인 행동이 연유되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유학사상에서 추론해낼 수 있는 사회관계 분야의 새로운 연구 문제를 도출해보고자 한 본서도 이러한 방법을 주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문화권의 인간관의 차이 정리: 서구 개인주의 문화와 동아시아 집단주의 문화의 생성 근원을 각각 그 사상적 배경인 자유주의와 유학사상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도출하고자 두 사상체계의 인간관의 차이 정리 (제1부 제1장)

문화차 개관의 기본틀 정립과 두 문화인의 현실적 차이 개관: 두 문화권의 차이를 개관하는 기본틀을 두 문화의 인간관의 차이로부터 도출하고, 사회관계의 측면에서 두 문화권 사람들의 현실적 심리과정과 행동의 차이 개관 → 두 문화의 차이에 관한 현실적 근거자료 마련 (제1부 제2장)

서구의 사회관계이론 고찰: 서구의 사회관계론의 이론적 모태가 되고 있는 자유주의자들의 “사회계약론” 고찰 (제2부 제3장) → 이에 근거를 두고 있는 현대 서구의 대표적인 사회관계론인 “사회교환이론”을 고찰한 후 “사회계약론”과의 관련성을 천착하여, 사회교환이론이 사회계약론에 근거를 두고 전개된 이론체계임을 확인 (제2부 제4장)

동아시아의 사회관계이론 고찰: 동아시아 사회관계론의 이론적 모태인 유학사상의 도덕실천론을 공자의 복례론(復禮論), 맹자의 여인위선론(與人爲善論), 순자의 군거화일론(群居和一論)을 중심으로 고찰 (제3부 제5장) → 선진유학의 사회관계론이 후대의 유학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리학자(性理學者)들의 교육론(『小學』과 『大學』 중심),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거경(居敬)사상을 바탕으로 고찰하여, 선진유학의 도덕실천론이 유학사상의 사회관

계론의 이론적 기반임을 확인 (제3부 제6장)

사회관계행동의 문화차와 동·서 사회관계론의 관련성 탐색: 2부와 3부에서 논의된 서구와 동아시아의 사회관계론을 대비하고, 이러한 차이가 두 문화권의 인간관의 차이에서 도출되는 것임을 확인 → 제2장에서 개관한 두 문화권 사람들의 현실적인 사회관계 행동의 차이와 각각의 사회관계론에서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차이 사이의 관련성을 고찰하여, 이론적 배경과 현실 행동 사이의 논리적 정합성 확인 (제4부 제7장)

새로운 유학심리학의 연구문제 도출: 유학의 사회관계론을 바탕으로 하여 서구의 현대 사회관계론 및 현대심리학 전반의 문제점과 그 보완책 고찰 → 유학사상에서 도출되는 새로운 연구문제를 역할심리의 문제, 분배정의의 문제, 작업동기와 보상체계의 문제 등 사회/조직심리학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리 (제4부 제8장)

참 고 문 헌

- 김성태 (1976). **성숙인격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노명식 (1991).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그 비판적 연구**. 서울: 민음사.
- 윤이흠·박무익·허남린 (1985). 종교인구조사의 방법론 개발과 한국인의 종교성향. 장병길교수 은퇴기념논총 발간위원회 편, **한국 종교의 이해** (pp. 343-371). 서울: 집문당.
- 윤태림 (1969). **한국인의 성격**. 서울: 현대교육총서 출판사.
- 윤태림 (1970). **한국인**. 서울: 현암사.
- 조금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나남출판.
- 조금호 (2006). **이상적 인간형론의 동·서 비교: 새로운 심리학의 가능성 탐색 I**. 서울: 지식산업사.
- 조금호 (2007). **동아시아 집단주의의 유학사상적 배경: 심리학적 접근**. 서울: 지식산업사.
- 조금호 (2008). **선진유학사상의 심리학적 함의**.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조금호 (2012). **사회관계론의 동·서 비교: 새로운 심리학의 가능성 탐색 II**.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최영진 (2000). 90년대 한국사회의 유교담론 분석.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부 편, **동아시아의 유교문화와 미래적 전망** (pp. 20-32). 서울: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부.
- 한덕웅 (2001). 한국의 유교문화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비판적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449-479.
- Amir, Y., & Sharon, I. (1987). Are social psychological law cross-culturally vali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8, 383-470.
- Berry, J. W. (2000). Cross-cultural psychology: A symbiosis of cultural and comparative approache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197-205.
-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 (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nziger, K. (1997). *Naming the mind: How psychology found its language*. London: Sage.
- Doob, L. W. (1980). The inconclusive struggles of cross-cultural psycholog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1, 59-73.
- Dülmen, R. v. (1997). *Die Entdeckung des Individuums 1500-1800*. Frankfurt am Main: Fischer Taschenbuch Verlag. (최윤영 역. **개인의 발견: 어떻게 개인을 찾아가는가 1500-1800**.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5.)
- Fiske, A. P., Kitayama, S., Markus, H. R., & Nisbett, R. E. (1998).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In D. T. Gil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2, pp. 915-981). Boston, MA: McGraw-Hill.
- Gergen, K. J. (1973). Social psychology as his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309-320.
- Gergen, K. J. (1985). Social constructionist inquiry: Context and implications. In K. J. Gergen & K. E. Davis (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erson* (pp.

- 3-18). New York: Springer.
- Gray, J. (1995). *Liberalism*. London: Open University Press. (손철성 역. 자유주의. 서울: 이후. 2007.)
- Greenfield, P. M. (2000). Three approaches to the psychology of culture: Where do they come from? Where can they go?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223-240.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차재호·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1995.)
- Kagitcibasi, C. (1997).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W. Berry, M. H.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nd ed., Vol. 3, pp. 1-49). Boston, MA: Allyn & Bacon.
- Laurent, A. (1993). *Historie de l'individualism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김용민 역. 개인주의의 역사. 서울: 한길사. 2001.)
- Lukes, S. (1973). *Individualism*. New York: Harper & Row.
- Manis, M. (1975). Is social psychology really differ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 427-436.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iller, J. G. (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da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61-978.
- Miller, J. G. (2002). Bringing culture to basic psychological theory—Beyond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omment on Oyserman et al. (2002). *Psychological Bulletin*, 128, 97-109.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2010). http://nces.ed.gov/programs/digest/d09/tables/dt09_418.asp
- Nisbett, R. E.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and why*. New York: Free Press.
- Oyserman, D., Coon, H. M., & Kemmelmeier, M.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 3-72.
- Pepitone, A., & Triandis, H. C. (1987). On the universality of social psychological theor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8, 471-498.
- Sampson, E. E. (1978). Scientific paradigms and social values: Wanted—A scientific revol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332-1343.
- Schlenker, B. R. (1974). Social psychology and sc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1-15.
- Shepard, R. (1987). Toward a universal law of generaliz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Science*, 237, 1317-1323.
- Shweder, R. A. (1990). Cultural psychology: What is it? In J. W. Stigler, R. A.

- Shweder, & G. Herdt (Eds.), *Cultural psychology: Essays on comparative human development* (pp. 1-4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weder, R. A. (2000). The psychology of practice and the practice of the three psychologie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207-222.
- Triandis, H. C. (1978). Some universals of social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 1-16.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 Triandis, H. C. (2000). Dialectics between cultural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185-195.
- Tu, Wei-Ming (1996). *Confucian tradition in East Asian modern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Yang, K. S. (2000). Monocultural and cross-cultural indigenous approaches: The royal road to the development of a balanced global psychology.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241-263.